

25 수학의 수리서 (100년후의말본)
 (지금은 옛날의 지금이다)

이 책은 명치 유신 (1868) 50년이 되는
 1920년을 기점으로 100년 후인 2020년 등
 세 차례의 한 말 종의 장 기 전 망 이 다

1984년에 수 학 행 한 책 인 데 원 제 (原是) 본
 은 < 말 본 말 본 인 > ^{이런 수리서가} (1920년 4월) 특 집 호

에 재 제 된 것 인 데 3 9 4 쪽 짜 리 행 라 기 다

당대 리 사 인 3 2 0 여 인 으 로 부 터 정 치 경

제 군사 사회 문화 등 350여 문안에

대한 예측을 하는 것이다

미래에 대한 예측은 종교사역도 있고

사상사역도 있다

1920년대의 알본은 이른바 마이스테모

코라시 (大正民主主義) 의 전성 시대의 말

하자면 백가쟁명 (百家爭鳴) 이 가능하다고

다시 말하면 알본이 군중주의 화하기

직전 단계에서 비교적 개방된 시대

이기는 했지만 설문 자체를 분석해 보면

홍익은 조종의 국수주의적 냄새가 났다

이 책을 보면 일본의 대동적 지식인에

의한 단순히 1920년대 일본의 지적

수준과 풍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아냐

당시 일본의 상상력이 어느 수준에 있

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신선한 느낌

이 가지도 한다

앙케트 자체를 놓고 보면 크게 두가지

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

그 하나는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할 때

이런 시대 이래 리를 구성한 사람들
 그 다른 하나는 완전히 상상이 자유
 롭고 모기 한 사람들 ~~이~~ 이들은 순전히
 는 극소수 이지 않는 내일이 어떻게 될
 지 모르는 데 무슨 100년 후의 나으고 불만 등
 들은 하는 사람 들이다

이 예측에서 과학 기술에 대한 예측은
 대단히 정확 하였고 그 많은 부분은

50년 후인 1970~80년대까지 실현 되었다

예를 들면 전인사 이동주행 (索引式)

稼働(稼働) 즉 트레이나 하우스 같은 것

이다

또한 과학과 기술에 관한 것 등

이도 빨리 이루어 지기도 했다

재미 있는 것은 한자(漢字)가 전파되고

영어가 국어가 된다는 전망도 있다

또한 2020년 까지 노벨문학상 수상자

13인에 1명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문학은

아니지만 지금 해례 안보의 노벨상 수

상자도 13인에 1명이라고 한다 또한

2020년 까지 600억 원 상당 용기 기간 출해 한다

고 여류 했는 데 지금의 빈임 74%은 거의

여기에 가까운 상태에 까지 와 있다

또한 2020년 까지 안분의 수도권 관서

(漢)西(大隈) 지역으로 이전 한다는 예 차도 있다

다 또한 재미 있는 것은 안분은 유럽을

근대화의 모델로 삼아 왔는데 안분은

언젠가는 유럽과 더불어 큰 부를 몰려 올 것

이다 정신 차리게 된 것이란 전망도 있다

어쨌든 우리도 한번 시도 해 볼 만한 안이리 생각된다